

## 0. 학습목표

- 1) <헌화가>에서 '아름다움'에 대한 신라인의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다.
- 2) <모죽지랑가>에서 화랑 집단의 번영과 쇠락을 읽어낼 수 있다.
- 3) <원왕생가>에 나타난 서방정토를 향한 신라인의 염원을 설명할 수 있다.

## 1. 수업에 앞서



<출처: 강릉시>

왼편에는 푸른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이 길의 이름은 헌화로이다. 강릉시의 금진 해변부터 심곡항까지 약 6km에 걸쳐 있는 이 길은 봄이 되면 절벽에 화려한 철쭉꽃이 만발하여 더욱 아름답다. 사랑하는 연인들을 즐겨 찾는 이 길, '꽃을 바치는 길'이란 뜻의 헌화로는 향가 <헌화가>에서 유래하였다. 이곳과 향가 <헌화가>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?

## 2. 학습 내용 소개

## 1) 향가의 개념과 형식, 그리고 작자층

향가라는 명칭은 특정한 역사적 갈래를 지칭하기 이전에 이미 신라와 고려시대에 그 나라 사람들이 자국어로 창작하고 즐겨 불렀던 노래들을 총칭하는 일반명사였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. 이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『균여전』(1075)이며, 이후 『삼국사기』(1145), 『삼국유사』(1281년경) 등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.

향가라는 명칭은 첫째, 향가는 중국의 한시와는 언어와 형식이 다른 우리말 노래라는 것이며, 둘째, 향가는 주로 절에서 재(齋)를 올릴 때 부르는, 범패(梵唄)라는 불교적 의식 음악과는 다른 노래라는 것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가는 한자를 활용하여 우리 말 형식으로 표현한 향찰로 표기되었다는 점이다.

향가는 수록된 원문의 분절 단위와 해독적 성과를 고려해 볼 때, 향가의 형식은 4구체, 8구체, 10구체로 나뉜다. 4구체는 시상 전개가 매우 단순한 민요계의 향가이며, 10구체는 시상의 흥기와 고양 및 하강이라는 시상 전개 구조와 서정적 완결의 짜임새를 갖춘 노래이다. 8구체는 그 중간 형식이다. 대체로 4구체는 일반 민중층에서 불렸으며, 8구체와 10구체는 상층 지식계층에서 창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.

## 2) <헌화가>, <모죽지랑가>, <원왕생가>의 의미 지향

이 강의에서는 각 형식과 작자층을 대표하여 각 한 수씩, 총 세 수의 향가 작품에 나타난 의미 지향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.

① 민중층의 노래였던 4구체 민요계 향가에서는 소를 끌고 가던 어느 시골 노인이 아름다운 수로부인에게 철쭉꽃을 바치며 불렀던 <헌화가>를 소개하며, 당시 신라인들이 지녔던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상상력을 살펴보기로 한다.

② 화랑 집단의 일원이었던 낭도 득오가 지었던 8구체 향가 <모죽지랑가>를 통해 삼국통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사집단으로서 화랑의 사회적 역할이 끝나갈 무렵, 어느 낭도가 한 위대한 화랑을 그리워하며 쓸쓸하게 불렀던 <모죽지랑가>를 통해 화랑 성쇠의 시적 형상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.

③ 10구체 불교계 향가인 <원왕생가>는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서방정토에 가기 위해 구도의 수행을 했던 광덕이 서쪽으로 떠 가는 달을 향해 기원했던 노래인 바, 당대 신라인들의 종교적 발원과 세계관의 자취를 살펴보기로 한다.

## 3. 출처